

■ 巡 訪 ■

晋州市立蓮庵圖書館

有緒깊은 古都 晋州 축석공원 廣場 北쪽 便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晋州市立蓮庵圖書館은 그 이로부터 全國의 다른 圖書館과는 다른 이미지를 풍겨 주고 있다.

玄關 門을 들어서면 “나는 回甲記念으로 이 圖書館을 지어 故鄉 社會에 바친다. 다만 바라건대 이 집이 知慧와 知識의 샘터가 되어지이다”라는 文句가 새겨진 검은 花崗石의 寄贈板이 우선 눈에 뜨인다. 昨年 11月 13日 竣工되어 今年 1月 9日부터 開館을 보게 된 이 圖書館은 鄉土 出身 篤志家 蓮庵 具仁會 先生(株式會社 덕기化學工業社 代表理事)의 回甲記念으로 私財 1,300萬원을 들여 晋州市에 寄贈한 現代式 2層 철근 콘크리트 建物로 約 20餘年間 70餘席의 座席으로 命脈을 維持해 온 晋州市立圖書館의 面貌를 刷新하여 公共圖書館으로서의 旗幟를 높이 들고 市民에게 奉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는 美國의 公共圖書館의 恩人 앤드루·카네기의 功勞에 비견하면 보잘 것 없는 일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社會가 公益社業에 參與할 줄 모르는 우리 社會의 風潮에서는 밀알 하나를 땅에 심는 보람이며, 길이 우리 市史에 새겨야 할 자랑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뜻으로 해서 全 晋州 市民이 자랑으로 생각하고 圖書館에 대한 關心을 갖게 한 動機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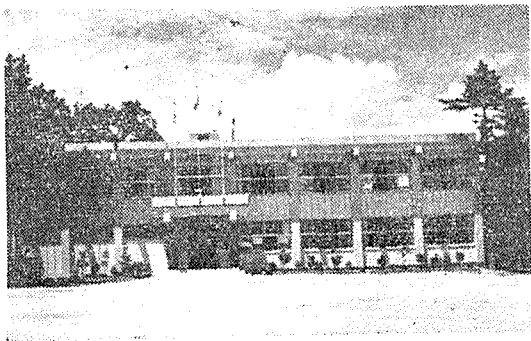
1. 施 設

終來에 있었던 晋州市立圖書館의 建物을 철고 1千3百萬원을 投資하여 現代式 2層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蓮庵圖書館은 建坪 178坪으로 아직 初創期의 建物이기 때문에 주위 環境이 아담하게 整理되어 있지는 않지만 300餘席의 座席을 갖추고 있다.

施設 規模는 一般閱覽室 140席, 參考 및 婦女閱覽室 60席, 兒童閱覽室 60席, 定期刊行物室 20席, 休憩室, 屋上으로 總 330席의 座席과 41臺의 閱覽臺를 가지고 있다.

2. 藏 書

처음에는 藏書도 없이 始作된 本 圖書館이 圖書모으



기 運動을 비롯하여 全職員이 獻身의인 勞力, 그리고 市民들의 關心과 協調로 지금은 5,000餘卷의 藏書를 갖게 되었다. 今年의 目標을 10,000卷으로 繼續의으로 圖書 蒐集에 勞力을 傾注하고 있는데 現在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分野가 文學分野로서 1,481卷이며 總類가 311卷, 哲學 132卷, 宗教 149卷, 社會科學 596卷, 純粹科學 123卷, 技術科學 130卷, 藝術 64卷, 語學 96卷, 歷史 300卷, 巡迴文庫 682卷, 기탁圖書 92卷, 洋書 803卷으로 總 4,945卷을 確保하고 있다.

資料의 分類는 洋書는 아직 손을 못대고 있는 實情이고 그 밖의 圖書는 韓國十進分類法을 使用하고 있다.

3. 奉 仕

蓮庵圖書館은 市民을 위한 公共圖書館으로서 開館이 된지 不過 7個月밖에 안된 지금 連 36,581名이 圖書館을 利用하였다.

大既의 圖書館이 그러하듯이 공부할 하기 위한 學生들이 利用者의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實情이지만 本 圖書館에는 成人을 비롯하여 兒童들의 利用도 많음을 볼 수가 있다. 이는 圖書館에 勤務하고 있는 全 職員들의 獻身의인 勞力과 每月 圖書館의 運營 實態를 메스컴(新聞, 라디오)을 通하여 全體 市民에게 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開館한지 約 3個月만인 지난 3月 15日부터 館內貸出을 始作하였으나 5月 8日부터는 館外貸出도 實施하고 있는데 圖書別 利用者 統計를 보면 總類 237卷, 哲學 124卷, 宗教 62卷, 社會科學 249卷, 純粹科學 224卷, 技術科學 124卷, 藝術 117卷, 語學 177卷, 文學 1,950卷, 歷史 217卷, 兒童圖書 4,250卷으로 總 7,731卷을 閱覽시킨 實績을 쌓았다.

그러나 本 圖書館은 우리 나라의 적은 地域社會를 밝고 明朗한 社會로 이끌어 가는데 앞장 서서 最善의 힘을 기우리고 있다는데 더 큰 意義를 찾아야 할 것 같다.

圖書館에 靑少年文化事業會라는 機構를 두어 情緒 醇化의 一環으로 “다같이 노래 부르기 運動”을 展開하는 것이라든지 閱覽室을 夜間에는 夜間公民學校로 열게 하는 일이라든지, 그 외에도 全 職員의 힘과 施設의 活用이 可能한 모든 일(文化行事)을 유치 展開하는 일이다

다만 獨立된 機能別 施設을 갖지 못한 탓으로 해서 보다 더 效果的인 活動을 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과 圖書館으로서의 基本 業務를 바람직하게 修行해 나가지 못하는 일이 걱정스러울 뿐이다.

우리 社會에는 너 나 할것 없이 할 일이 많기 때문일까?

다만 蓮庵圖書館은 한창 成長하고 있는 圖書館임을 말해 둔다 (김문현; 晋州市立蓮庵圖書館)